

## 임상간호연구 게재논문 분석: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김연희<sup>1)</sup> · 정금희<sup>2)</sup> · 권인각<sup>3)</sup> · 김광성<sup>4)</sup> · 문성미<sup>5)</sup> · 이정림<sup>6)</sup> · 박영아<sup>7)</sup>

<sup>1)</sup>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 <sup>2)</sup>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sup>3)</sup>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삼성서울병원 암병원간호부장, <sup>4)</sup>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5)</sup>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6)</sup>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sup>7)</sup>한림대학교 간호대학원 대학원생

### Bibliographic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Kim, Yeon Hee<sup>1)</sup> · Jeong, Geum Hee<sup>2)</sup> · Kwon, In Gak<sup>3)</sup> · Kim, Kwang Sung<sup>4)</sup> ·  
Moon, Seong Mi<sup>5)</sup> · Lee, Jung Lim<sup>6)</sup> · Park, Young A<sup>7)</sup>

<sup>1)</sup>Chief Nursing Officer, Department of Nursing, Asan Medical Center  
<sup>2)</sup>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sup>3)</sup>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Director, Department of Nursing (Cancer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sup>4)</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up>5)</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lsan University  
<sup>6)</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sup>7)</sup>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trend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268 articles.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ppropriateness of methods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and key concepts of articles were analyzed. **Results:** A clinical nurse was the first author for 184 (66.7%) articles. The number of collaborative works between hospital and university was 184 (68.7%). Study participants were patients (120, 38.1%), nurses (115, 36.5%) and others. IRB approval was given for 156 articles (58.2%).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in 125 articles (46.7%). Quantitative research accounted for 98.6% of the articles but qualitative studies only 4 (1.4%). Types of interventions in the experimental studies were nursing skills (43, 42.6%) and health education (32, 31.7%). Major keywords were nurses, pain, knowledge, intensive care unit, anxiety, depression, fatigue, and stress. **Conclusion:** Articles in this journal deal with topics and concepts confronted in nursing practice so experimental studies on applicability of nursing interventions were frequently published.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uthors published in the journa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 with characteristics distinctive from other nurs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Key words:** Clinical Nursing Research, Informed Consent, Republic of Korea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연구는 간호사가 질적·비용 효과적 근거중심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하다. 근거중심의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에 필요한 현상을 서술, 설명, 예측,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1]. 1970년에 국내 간호과학회에서 대한간호과학회지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분과학회지가 발간

**주요어:** 임상간호연구, 사전동의서, 한국

**Corresponding author:** Jeong, Geum Hee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24252, Korea.  
Tel: 82-33-248-2713, Fax: 82-33-248-2734, E-mail: ghjeong@hallym.ac.kr

\* 본 연구는 2016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연구임.

투고일: 2017년 1월 31일 / 심사요리일: 2017년 2월 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16일

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서는 병원간호실무 향상을 위해서 임상 현장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다루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를 1995년 1권을 발간한 이후 1997년까지 연 1회,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 2회, 2006년부터는 연 3회 발간하여 2016년 현재 22권까지 발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한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등의 학회지는 주기적으로 학술지 게재논문을 통한 간호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임상간호연구는 1995년 창간호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에 대한 분석을 일차 수행하였고[2], 2010년에 보다 세분화된 논문분석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13년간 연구 동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3]. 임상간호연구는 다른 학술지와 차별화된 특성으로 임상현장의 간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흥미 있고, 생생한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이 게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일차분석[2]과 2010년 이차분석 결과[3]에서 실험연구가 47.0%, 47.2%를 차지하였고, 실험중재 중 간호기술영역의 중재는 28.1%에서 44.3%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중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타 간호학술지와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4.7%, 25.7%로[2,3], 대한간호학회지와 분과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7.4%인데 비하면 높은 비율이다[4]. 이는 환자의 간호문제를 다루는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임상간호연구 논문은 다른 간호학술지에 비하여 유사실험연구와 간호중재에 대한 논문이 많고 간호중재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임상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간호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

최근 의료 보건 분야의 연구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임상영역에서 근거기반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5, 6],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연구보고의 지침들로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 with Nonrandomized Designs (TREND),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등이 개발되어서 논문평가에 적용되고 있다[6-8]. 또한 임상연구의 윤리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2015년 국내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기관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사전심의와 연구참여자의 서면동의는 의무화되었다[9]. 국내 대부분의 간호학술지들이 IRB의 승인을 논문투고규정에 포함하였고 임상간호연구도 최근 이를 반영하면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요인

들로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되는 논문들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3차 연구로 본 연구는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하여 간호학문의 지식체의 발달 경향과 방법론을 파악하고 추후 지식체의 발달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간호학문의 발달을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다[5]. 따라서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국제 학술지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재단등재지인 임상간호연구가 앞으로 SCI, SSCI, Scopus 와 같은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전문적 학술지로 발전하고 임상실무에서 시행되어야 할 미래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7년간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임상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전문 학술지로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최근 7년간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 2) 최근 7년간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 3) 최근 7년간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를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7년간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 분석 대상으로 이용한 논문은 2009년 4월부터 2015년 12월(15권 1호~21권 3호)까지 7년간 게재된 총 268편의 논문이었다.

### 3. 논문 분석틀

본 연구에서 논문분석연구와 관련된 선행문헌들[3,4,10]을

고찰하여 일차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진의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석틀을 논문의 전반적 특성,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논문의 주요어 분석 등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게재 논문의 전반적 특성은 연구비지원, 협력연구형태, 연구유형, 연구자의 특성으로 연구자의 수, 소속, 직종, 연구대상, 논문의 윤리성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둘째, 양적 연구의 전반적 특성으로 연구설계, 표본 수 산정기준, 자료수집방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도구사용 허락 등과 실험연구에서 적용한 실험중재 및 종속변수의 종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실험연구중재와 종속변수의 종류는 Choe 등[4]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는 연구설계, 철학적 배경, 연구자 훈련,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넷째, 논문의 주요어는 메쉬(Medical Subject Heading, MeSH)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주요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4. 논문분석방법

논문 분석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틀을 2명의 연구자가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모든 연구자가 재검토하여 최종 분석기준을 결정하였다. 모든 연구자가 논문 2편을 사전 분석하여 분석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연구자간 평가 일치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각 연구자들은 확정된 분석기준에 따라서 분담한 논문의 내용을 일차 분석하였으며, 일차 분석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 2명이 다시 검토하고 논의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고 재분석한 결과를 모든 연구자가 다시 확인하고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Excel program을 이용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등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논문의 전반적 특성 분석

임상간호연구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총 268편 논문의 전반적 특성은 연구비 지원, 협력연구형태, 연구유형, 연구자의 수, 연구자의 소속 및 직종, 연구대상, 논문의 윤리성에 따라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논문 중 논문유형은 연구비 수혜 논문이 36.6%(98편), 연구비 지원 없이 수행된 논문이 63.4%(170편)이었고 그 중 학위논문이 20.5%(55편)이었다. 연구비 수혜 논문 98편 중 병원간호사회 연구비 지원 논문 57편(58.1%)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병원 연구비 지원 논문 22편(22.4%), 대학 연구비 지원 논문 9편(9.2%)의 순이었으며 그 외 국가연구재단이나 학회 등을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협력연구의 형태는 연구자들이 임상간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산학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 게재한 논문이 68.7%(184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은 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들이 공동 수행한 연구들이었다. 그 외 연구자가 임상간호사들로부터 수행한 임상논문이 21.3%(57편), 대학교수나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수행한 학교논문은 10.0%(27편)의 순이었다.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가 98.6%(264편)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질적 연구는 1.4%(4편)이었다. 연구자의 특성으로 연구자의 수, 제 1저자와 교신저자의 소속과 직종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수는 2명이 28.0%(75편)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은 4.1%(11편)이었고, 9명 이상이 10.1%(27편)이었다. 연구자의 수는 최대 21명이 0.4%(1편)이었고, 평균 8.8명이었다. 연구자의 소속과 직종은 연구자 중 제 1저자와 교신저자만을 분석하였고, 제 1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는 제 1저자만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소속은 제 1저자는 임상 66.7%(184편), 교신저자는 대학이 64.2%(136편)로 가장 많았다. 연구자의 직종은 제 1저자는 간호사가 66.7%(184편), 교신저자는 교수가 60.9%(129편)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은 건강관리제공자에 대한 논문이 40.3%(127편)로 가장 많았고 그 중 간호사가 36.5%(115편)였다. 그 다음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38.1%(120편)이었고 그 중 성인 환자가 25.7%(81편)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한 일반인은 2.6%(8편)이었다. 그 다음은 논문과 병원기록 등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9.2%(29편), 보호자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4.4%(14편), 병원과 시설등 기관은 2.2%(7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윤리성은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과 동의서로 분석하였다. IRB 승인은 해당 없는 논문이 5.6%(15편)이었고, IRB 승인을 받은 논문이 58.2%(156편), 승인받지 않은 논문이 36.2%(97편)였다. 동의서와 관련해서 해당 없는 논문이 12.7%(34편)이었고, 서면동의를 받은 논문은 46.7%(125편), 동의라고만 표기한 논문 31.0%(83편), 동의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논문 7.8%(21편), 구두동의만 받은 논문 0.7%(2편)로 나타났다.

#### 2. 양적 연구 분석

##### 1) 전반적 특성 분석

임상간호연구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총 264편

**Table 1.**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N=26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Note		
Funding	No		170 (63.4)	Master's thesis or dissertation: 55 (20.5%)		
	Yes		98 (36.6)			
Types of authors' affiliations	Clinical institute		57 (21.3)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27 (10.0)			
	Both		184 (68.7)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research		264 (98.6)			
	Qualitative research		4 (1.4)			
Number of authors	1		11 (4.1)	Mean: 8.8 Range: 1~21		
	2		75 (28.0)			
	3~4		72 (26.9)			
	5~6		48 (17.9)			
	7~8		35 (13.0)			
	≥9		27 (10.1)			
Affiliations of authors according to role* †	First author	Clinical institute	184 (66.7)			
		University	88 (31.9)			
		Research institute	4 (1.4)			
	Corresponding author	Clinical institute	67 (31.6)			
		University	136 (64.2)			
		Research & governmental institute	9 (4.2)			
Title of author* †	First author	Nurse	184 (66.7)			
		Professor	83 (30.1)			
		Graduate student	5 (1.8)			
		Researcher	4 (1.4)			
	Corresponding author	Nurse	66 (31.1)			
		Professor	129 (60.9)			
		Graduate student	7 (3.3)			
		Researcher	8 (3.8)			
		Others (team leader, center director)	2 (0.9)			
Research subjects*	Ill patients	Children, adolescents	8 (2.5)			
		Adults	81 (25.7)			
		Aged	20 (6.3)			
		Overall aged subjects	11 (3.5)			
		Subtotal	120 (38.1)			
	Healthy persons	Children, adolescents	1 (0.3)			
		Adults	4 (1.3)			
		Aged	0 (0.0)			
		Overall aged subjects	3 (1.0)			
		Subtotal	8 (2.6)			
	Health care providers	Nurses	115 (36.5)			
		Others (staff, doctor, student, etc.)	12 (3.8)			
		Subtotal	127 (40.3)			
	Guardian	Family	14 (4.4)			
	Documents	Literature, paper, medical records	29 (9.2)			
	Organization	Hospitals, institutions	7 (2.2)			
	Administration	Nursing cost	3 (1.0)			
	Information	Web, smartphone	2 (0.6)			
	Others	Instrument, protocol, etc.	5 (1.6)			
	Total		315 (100.0)			
	Ethical approv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Yes		156 (58.2)	
			No		97 (36.2)	
			Not-applicable		15 (5.6)	
		Informed consent	Written consent		125 (46.7)	
			Only description of agreement		83 (31.0)	
			Not reported		21 (7.8)	
			Verbal consent		2 (0.7)	
Description of cause of exemption			3 (1.1)			
Not-applicable			34 (12.7)			

\*Multiple response; † Only the first author is marked, if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are the same.

의 양적 연구를 연구설계, 표본 수 산정기준, 자료수집방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도구사용 허가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Table 2).

연구설계는 비실험연구가 67.0%(177편)이었고 실험연구가 33.0%(87편)으로 나타났다. 그 중 조사연구가 49.6%(131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사실험연구가 29.6%(78편), 방법론연구가 15.1%(40편)의 순으로 많았다.

표본 수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63.9%(147편)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가 57.8%(197편)으로 가장 많았고, 관찰 11.7%(40편), 생리적 측정 9.7%(33편), 의무기록 8.5%(29편), 기존연구 5.6%(19편)의 순으로 많았다. 그 외 면담 3.2%(11편), 델파이 2.3%(8편), 인터넷 0.6%(2편)이었고, 기타 방법으로는 병원원보, 항공운항자료가 있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를 보고한 논문은 79.8%(170편), 보고하지 않은 논문은 20.2%(44편)였다. 도구의 타당도를 보고한 논문은 41.7%(90편), 보고하지 않은 논문은 58.3%

(126편)이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사용을 도구 개발자에게 허락받았다고 보고한 논문은 17.3%(30편)이었고, 82.7%(143편)는 도구사용 허락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 2) 간호중재의 분석

총 87편의 실험연구논문에서 간호중재의 종류와 종속변수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간호중재의 종류로 간호기술에 해당되는 간호중재를 적용한 논문이 42.6%(43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강교육영역 31.7%(32편), 심리사회적 지지영역 17.7%(18편), 보완대체영역 5.0%(5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간호행정영역 1.0%(1편)이 있었고, 기타로 프로토콜과 매뉴얼개발 등이 2.0%(2편)이었다.

간호중재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간호기술영역은 운동이 11.9%(12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관절운동, 골반저운동, 낙상 예방운동, 탄성밴드운동 등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중재가 적용되었다. 냉온요법이 5.0%(5편), 체위, 구강관리와 약물중

**Table 2.** Analysis of Methods Section of Quantitative Study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N=26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Research design	Experiment study	True experiment study	5 (1.9)
		Quasi-experiment study	78 (29.6)
		Pre-experimental study	4 (1.5)
		Subtotal	87 (33.0)
	Non-experimental study	Survey study	131 (49.6)
		Methodological study	40 (15.1)
		Meta analysis	2 (0.7)
		Cohort study	1 (0.4)
		Triangulation	1 (0.4)
		Q-methodology	1 (0.4)
Delphi study	1 (0.4)		
Subtotal	177 (67.0)		
Description of sampling criteria*	Yes		147 (63.9)
	No		83 (36.1)
Data collection method <sup>†</sup>	Questionnaire		197 (57.8)
	Observation		40 (11.7)
	Physiological measure		33 (9.7)
	Chat review		29 (8.5)
	Literature analysis		19 (5.6)
	Interview		11 (3.2)
	Delphi		8 (2.3)
	Internet		2 (0.6)
	Others		2 (0.6)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	Reported		170 (79.8)
	Not reported		44 (20.2)
Validity of measurement tool*	Reported		90 (41.7)
	Not reported		126 (58.3)
Permission for measurement tool use*	Reported		30 (17.3)
	Not reported		143 (82.7)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sup>†</sup> Multiple response.

재가 각 4.0%(4편씩)이었고, 발이나 복부 마사지가 3.0%(3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로 억제대나 귀마개적용, 캔거루 프로토콜 적용, 연하곤란중재 등 다양한 간호기술들에 대한 간호중재가 있었다. 건강교육영역 간호중재는 개인이나 집단정보제공이 24.8%(25편)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정보중재 6.9%(7편)였다. 심리사회지지 간호중재는 이완요법이 7.9%(8편)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웃음치료가 3편이었고, 미술과 그림동화책, 음악을 활용한 집단회상 등이 있었다. 보완대체요법 간호중재는 향요법, 수지침, 전기자극치료, 원예요법과 기공체조가 각 1편씩 있었다.

실험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Table 3). 종속변수는 임상결과영역이 37.5%(54편)로 가장 많았고, 인지영역

23.6%(34편), 지식·태도·행동영역 16.7%(24편), 기능영역 11.8%(17편), 정서영역 10.4%(15편) 순으로 나타났다.

### 3. 질적 연구 분석

질적 연구는 총 4편으로, 연구설계, 철학적 배경, 연구자 훈련, 자료수집방법,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연구설계는 현상학적 연구가 2편이었고, 구체적 구분 없이 질적 연구로 내용분석과 주제분석이라고 한 연구가 각 1편이었다. 철학적 입장을 제시한 논문은 3편이었고, 연구자 훈련을 기술한 논문은 1편이었다.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한 논문은 각 2편이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al Studies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N=8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Types of nursing intervention*	Nursing skills	Exercise	12 (11.9)
		Cold and warmth therapy	5 (5.0)
		Position	4 (3.9)
		Oral care	4 (3.9)
		Medication	4 (3.9)
		Massage	3 (3.0)
		Others	11 (11.0)
		Subtotal	43 (42.6)
	Health education	Providing information (individual, group)	25 (24.8)
		Information using Internet	7 (6.9)
		Subtotal	32 (31.7)
	Psychosocial support	Relaxation therapy	8 (7.9)
		Supportive care	4 (3.9)
		Counseling	4 (3.9)
		Social support	1 (1.0)
		Communication	1 (1.0)
		Subtotal	18 (17.7)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romatherapy	1 (1.0)
		Hand acupuncture	1 (1.0)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1 (1.0)
Horticultural therapy		1 (1.0)	
Tai Chi		1 (1.0)	
Subtotal		5 (5.0)	
Nursing administration		1 (1.0)	
Others		2 (2.0)	
Total		101 (100.0)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Clinical endpoints	54 (37.5)	
	Perceptual outcomes	34 (23.6)	
	Knowledge, attitudes, or behavioral outcomes	24 (16.7)	
	Functional status	17 (11.8)	
	Emotional outcomes	15 (10.4)	
	Total	144 (100.0)	

\*Multiple responses.

#### 4. 논문의 주요어 분석

268편 논문 한편 당 사용한 주요어는 평균 3.5개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어는 총 1,006개, 주요어의 가짓수는 총 606개였다. 그 중 메쉬와 일치하는 주요어는 300개(49.5%), 일치하지 않는 주요어는 306개(50.5%)였다.

빈도수가 3회 이상인 주요어를 메쉬 일치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빈도수가 3회 이상인 주요어는 모두 64개였고, 이 중 메쉬와 일치하는 주요어는 75.0%(48개), 일치하지 않는 주요어는 25.0%(16개)이었다. 빈도수가 10회 이상인 주요어는 모두 8개였으며, nurses가 45회

로 가장 높았고, pain 20회, knowledge 18회, intensive care unit 12회, anxiety, depression, fatigue, stress가 각 10회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빈도수가 9회인 주요어는 nursing, quality of life, self-efficacy가 있었고, 8회인 주요어는 메쉬와 일치하는 hospitals, patients, practice guideline과 메쉬와 일치하지 않는 hemodialysis가 있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발전과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7년간 임상간호연구 게재논문에서 연구자로 제 1저자는 간호사가 66.7%, 교신저자는 교수가 50.9%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임상간호연구 게재논문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교수는 제 1저자 17.9%, 교신저자 27.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3], 교수 연구자의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했다. 이는 산학협력연구가 68.7%이고, 학위논문이 20.5%로 임상간호사가 대학의 교수와 함께 논문을 게재하면서 교수 연구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수에서 단독 연구는 4.1%에 불과하고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의 수가 평균 8.8명으로 논문에 많은 연구자가 함께 참여한 것은 최근 임상에서 병동이나 팀 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공동연구를 많이 수행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간호주요학술지에 게재된 논

**Table 4.** Analysis of Methods Section of Qualitative Study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N=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Research design	Phenomenological method	2
	Content analysis	1
	Thematic analysis	1
Philosophical background	Yes	3
	No	1
Researcher training	Yes	1
	No	3
Reliability	Reported	2
	Not reported	2
Validity	Reported	2
	Not reported	2

**Table 5.** MeSH and Non-MeSH keywords List with Its Frequency of Appearance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N=268)

Frequency	MeSH keywords	Non-MeSH keywords
45	Nurses	
20	Pain	
18	Knowledge	
12	Intensive care units	
10	Anxiety, depression, fatigue, stress	
9	Nursing,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8	Hospitals, patients, practice guideline	Hemodialysis
7	Attitude, classification, evidence-based nursing, job satisfaction, pressure ulcer	Satisfaction
6	Nursing care, nursing process, risk factors, sleep, standards, stroke	Performance
5	Delirium, social support	Adaptation, coping.
4	Clinical protocols,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 nursing staff	Competency, job stress, turnover, validity
3	Blood pressure, compliance, critical care, education, exercise therapy, laughter therapy, motivation, nurse's role, operating rooms, organizational culture,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hysical restraint, qualitative research, thirst, uncertainty	Bleeding, chemotherapy, clinical nurse, discomfort, image, neonatal, reliability, turnover intention
64 (100.0 %)	48 (75.0 %)	16 (25.0%)

문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 2000년 이후 국내 간호연구가 양적 팽창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임상실무경험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꼽았다[4].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와 대학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연구가 68.7%라는 결과는 Kim 등[2]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간호연구 게재 논문분석에서 산학협력연구가 20.3%인 것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가 당면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산학이 함께 연구하는 것은 간호실무와 이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그러나 참여한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임상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들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학문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연구 논문이나 여러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다기관 연구 논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논문이 증가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다기관 연구와 다학제적 연구를 추진하고 이런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임상간호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수혜논문이 3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SSCI와 SCI-E 등 재지인 JKAN 게재논문의 35.9%가 연구비 수혜논문이라는 보고[5]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병원간호사회의 연구비 지원 사업 확대는 물론 국가학술연구재단과 여러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전략 검토와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논문의 연구대상은 건강관리자가 40.3%로 가장 높았고, 특히 건강관리자 중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36.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요어 분석에서 'nurses'가 45회로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주요어의 2번째 순위인 'pain'이 20회인 것과 비교할 때 간호사가 연구의 핵심적 주요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국내 다른 학회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19.0%[4]와 중환자간호 관련 연구 분석 결과에서 24.3%[1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고, 이전에 임상간호연구 게재논문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24.7%[2], 25.7%[3] 보다 본 연구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석대상 학술지가 병원간호사회에서 공식 발간하는 잡지로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투고율이 높아 간호사와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임상에서 환자 대상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보다 자료수집과 접근성이 좋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과거

보다 증가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추후 관련 논문에 대한 주제와 연구문제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연구대상이 건강관리자 다음으로 환자가 38.1%였고 특히 성인 환자가 25.7%로 높은 반면, 건강한 일반인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학회지의 2010년도까지 게재된 논문 분석에서 건강한 일반인이 35.8%, 환자가 23.6% 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4] 환자 대상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Yarcheski 등[12]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4개 간호저널로, Nursing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 Health, Western Journal of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에 게재된 논문분석에서 일차관리보다 만성건강문제를 가진 성인 대상으로 한 간호실무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상간호연구 게재 논문은 주요 연구자인 임상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했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인보다는 환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임상간호연구 게재 논문 분석 결과에서 환자 연구대상 논문이 63.2%[2], 55.8%[3]와 비교할 때 이번 분석결과에서 38.1%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윤리의 강화, 기관윤리위원회 심의와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월하지 않은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연구의 주제 선정과 연구 기획 단계부터 연구윤리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병원간호사회 등의 협회와 학회차원은 물론 각 기관별로도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상연구에서 연구의 윤리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임상간호연구도 IRB 승인을 논문투고규정에 포함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IRB 승인받은 논문이 58.2%로 나타났다. 연구 윤리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RB 승인과 별개로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13]. 본 연구에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한 논문은 46.7%였고, 동의라고만 표기한 경우가 31.0%,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7.8%, 구두동의가 0.7%로 나타났다. 따라서 39.5%에 이르는 논문들이 서면동의에 대한 확실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윤리와 관련되어 연구자가 양적 연구에서 도구사용 허가를 보고한 논문이 17.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게재논문의 생명윤리기준 준수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 투고규정은 제시하고 있지만 게재논문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 따라서 논문 투고와 심사과정에서 연구자에게 IRB 승인과 함께 연구대상자에게 구두동의가 아닌 서면동의서 승인 여부와 연구도구 허가를 도구개발연구자에게 승인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학술지 편집자의 확인과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원간호사회와 간호학술단체에서 임상간호연구자에게 연구윤리 관련 요구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침을 교육 및 홍보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연구 논문 중 실험연구가 33.0%로 과거 47.2%[3]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내 학회지 게재 논문의 20.6%[4]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실험연구에서 다양한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많았다. 간호기술영역의 간호중재가 42.6%로 가장 많았고 운동, 체위, 냉온요법, 구강관리와 약물 등 다양한 중재들을 임상실무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건강교육영역 간호중재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요실금, 낙상예방, 자가 통증 조절, 재활자기관리, 식사 등과 관련된 교육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많았다. 실제로 임상간호연구 게재 논문들이 간호사의 다양한 임상적 주제와 간호중재 결과를 게재하면서 임상간호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실험연구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간호중재를 분석하여 개발된 효과적 간호중재를 임상에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험연구 총 87편 중 유사실험연구가 78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순수실험연구는 5편에 불과하다. 간호 실무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는 유사실험연구라고 하더라도 결과와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연구설계를 보완하고 반복연구를 통해 중재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충분히 실무적용이 가능하다[3]. 그러나 임상에서 실험설계연구의 수행하는데 무작위배정이나 맹검 등 많은 어려움과 제한들이 있어도[3],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자가 순수실험설계와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병원간호사회 연구비의 우선적 수혜 기회나 신속한 학회지 게재 등의 다양한 전략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상간호연구에서 보고된 많은 실험중재 연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CONSORT와 TREND의 보고지침을 근거로[7, 8], 추후 게재 논문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논문의 보고와 관련된 지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논문 주요어의 가짓수가 중복을 제외하고 606

개에 달한다. 주요어로 빈도가 높은 ‘nurses’ 외에, ‘pain’이 20회로 많았고, ‘hemodialysis’도 8회로 혈액투석에 대한 연구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intensive care units’, ‘nursing’, ‘evidence-based nursing’, ‘nursing care’, ‘nursing process’ 등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와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심리 인지적 개념인 ‘anxiety’, ‘depression’, ‘fatigue’, ‘stress’ 등도 10회로 많이 나타나서 간호연구의 주요 연구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job satisfaction’, ‘job stress’와 ‘stress’도 빈도수가 높은 주요어로 최근 간호사의 직무와 스트레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른 학술지와 차별화된 특성으로 다양하고 많은 개념과 주제에 대한 논문이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는 단 4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건강관리와 임상연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균형이 필요하다.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각각의 방법이 상호 호혜적으로 자료 수집과 자료분석을 이끌고 각각의 결과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에 추가되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이제 복잡한 중재연구뿐만 아니라 간호 분야에서도 강력하게 옹호되고 있다[15].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과 자료분석방법 등 연구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나 임상실무에서 간호사가 주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구자 훈련이나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결과를 참여자에게 다시 점검받는 것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간호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에 대한 주기적인 다양한 수준의 워크숍이나 보수교육 등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회에서 발간하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최근 7년간 게재된 논문 총 268편을 분석하여 임상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간호사가 임상실무현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개념을 탐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논문이 많았다. 이는 다른 간호학술지와 차별화된 특성으로 간호실무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전문학술지로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와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비중이 큰데, 환자대상 연구는 감소한 반면 간호사 대상 연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추세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연구와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순수실험과 RCT 연구수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윤리성 확보를 위해서 학술지 심사와 편집절차를 체계화하고, 연구자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임상 연구자를 위한 질적 연구 등 연구방법과 논문작성에 대한 워크숍과 보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1. Lee EW, Lim NY, Park HA, Lee IS, Kim JI, Bae JI, et al.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Paju: Soomoonsa; 2009. p 19.
2. Kim MY, You OS, Lee EW, Cho EY.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05 in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5 Annual Report. Seoul: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06 January.
3. Choe MA, Jeong JS, Lim KC, Kim JH, Kim KS, Kwon JS, et al. Research trend of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5-2008.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0;16(2):95-105.
4. Choe MA, Kim NC, Kim KM, Kim SH, Park KS, Byeon YS, et al.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5): 484-494. <https://dx.doi.org/10.4040/jkan.2014.44.5.484>
5. Shin HS, Hyun MS, Ku MO, Cho MO, Kim SY, Jeong J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1):139-149. <https://dx.doi.org/10.4040/jkan.2010.40.1.139>
6. Jung HI, Kim HE.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the reporting guideline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14;14(3):269-275.
7. Fuller T, Pearson M, Peters JL, Anderson R. Evaluating the impact and use of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ized designs(trend) reporting guidelines. BMJ Open. 2012;2(6):e002073. <https://dx.doi.org/10.1136/bmjopen-2012-002073>
8. Yoo S. Reporting guidelines for health promotion researc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2;29:83-99.
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Bioethics and Biosafety Act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cited 2016 October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32&efYd=20160630#0000>.
10. Jeong GH, Ahn YM, Cho DS. Coincidence analysis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7): 1420-1425. <https://dx.doi.org/10.4040/jkan.2005.35.7.1420>
11. Choi EH, Jang EH, Choi JY, Lee SJ, Seo HK, Park KS.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1992-2011): intensive care nursing studi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4):384-396. <https://dx.doi.org/10.7475/kjan.2015.27.4.384>
12. Yarcheski A, Mahon NE, Yarcheski TJ. A descriptive study of research published in scientific nursing journals from 1985 to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2;49(9): 1112-1121. <https://dx.doi.org/10.1016/j.ijnurstu.2012.03.004>
13.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nd ed. Seoul: Academia; 2013. p 3-8.
14. Jeong IS, Um YR, Kin KS. Ethical considerations in articles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al Education. 2008;11(2):153-162.
15. Sandelowski M.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ampl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echniques in mixed-method studi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00;23(3): 246-255. [https://dx.doi.org/10.1002/1098-240X\(200006\)23:3](https://dx.doi.org/10.1002/1098-240X(200006)23:3)